

“불서, 불자 인생등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격이 있는 출판사를 설립해 불교출판 활성화에 초석을 다진 이봉수(68) 씨.

그는 기자의 질문에 앞서 “불교출판은 불법을 바탕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불자들이 읽을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며 “한 권의 책도 허투루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제는 기억이 없다며 한 두 마디 던지는 어눌한 말투에서 수행자의 향기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청년시절 동학사 강원에서 경봉 스님의 지도로 여러 경전을 공부했다. 이러한 불교공부가 결국 체신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게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그는 우연히 북한산 승가사 후불탱화 조성불사에 자원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 대가로 받은 18만 원으로 미아리에 헌책방 미흥서점을 연 것이 출판인으로서의 첫 걸음이다. 그 후 사세를 넓혀 지난 64년 문을 연 것이 도서출판 보련각이다. 지금까지 영인본, 법요집 등을 제외하고도 약 1천여종의 불서를 펴냈다. 이 가운데는 <선문할오>, <조선불교사>, <사학대사전>, <불교대사전>, <불교동화시리즈>(전12권), <한국잡지총서>(전17권) 등 굵직한 출판물들도 많다. 하지만 출판 종주의 많고 적은은 이 씨의 출판 인생에 있어 그리 중요치 않다.

그는 돈을 벌기보다는 일을 벌이는 것으로 더 유명하다. <불교학대사전>(전7권)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이 사전은 만들 당시 불교학자 20여명이 상주하면서 집필할 정도로 보련각은 불교출판의 중심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과 운영미숙으로 결국 이 사전은 보련각에서 출판되지 못했다. “이때문에 ‘기획은 보련각, 돈벌이는 다른 출판사’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경제적인 이익은 다른 곳에서 누렸지. 이것이 바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슬픔이자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전자책, e-book 등 새로운 책들이 전통적인 출판 관행을 한순간에 바꿀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한전에서는 이제야말로 종이책만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때라고 제동을 건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출판환경은 변해도 처음 출판을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까지 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불교출판의 선구자 이봉수 씨의 삶은 불교출판인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책독습 불교출판 선구자 이봉수 씨

보련각 세워 1천여종 펴내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27년 11월 22일 수요일 15

불교 발원문 “가사문학의 뿌리”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지음

가사는 고려말에 발생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와 크게 융성한 문학 형식으로 시조와 함께 우리 전통 시가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그 발생 기원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어왔는데, 고려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했다는 설을 비롯해 시조 발생설, 민요 발생설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말 나옹화상이 지은 <서왕가>에서 출발해 조선시대를 거쳐 최근까지도 주로 승려들에 의해 창작되어온 불교가사는 지금까지 사대부가사, 평민가사 등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한 갈래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국문학사상의 통설을 뛰어넘어 가사문학 자체가 불교가사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책이 출간됐다.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기중 교수가 최근 펴낸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는 순수 불교가사 108편을 모아 한글원전을 주석한 책이다. 이를 당시 국한 혼용문과 현대문으로 풀이해 본래 가사가 담고 있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임 교수는 이 책에서 가사문학의 한 분야로 다루어온 불교가사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다. 기존의 통설을 뒤집고 오히려 ‘한국 가사문학의 발생은 불교의 발원문에서 비롯되었으며 불교가사가 한국 가사문학의 효시’임을 증명해 보인다.

고려가요, 경기체가, 민요 등 가사문학이 나오기 이전의 한국 전통 시가는 한 줄이 세 개의 소리마디로 된 3음보였는데 어떻게 4음보의 가사문학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임 교수는 한문으로 된 불교의 발원문을 우

4구계 등 4음보 효시

“가사체 신라 때부터”

추원 불교가사 3편 수록

리 말과 글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4음보의 가사체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불교의 계승은 4구계가 기본이고, 발원문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누구나 쉽게 염송하고 기억하도록 하려는 데서 4음보 가사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불교가사, 유교의 가사, 동학가사, 천주가사 등 한국 가사문학의 핵심 축이 불교가사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 또한 불교가사가 한국 가사문학의 효시로 가사문학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음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불 때 가사체의 발생시키는 고려말이 아니라 신라의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의 발원문이 나타나는 7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인다. 다만 한글로 구제적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고려말 나옹화상의 <서왕가>라는 것이다.



원전표기와 자사, 출전을 근거로 불교가사 작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소독도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추원 이경수의 불교가사 세 편을 찾아내 정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소설 <원효대사>에 들어있던 ‘원효대사 법회송’과 ‘문’, ‘정정행’ 등은 불교가사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층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많은 이본을 낚은 ‘회심곡’에서 보듯 불교가사의 유행 주체는 일반 대중이었다. 대중적 불어의 공인까지 들어갈 정도로 불교가사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는 공감대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원전표기를 바탕으로 ‘회심곡’을 ‘환참곡’으로 바로잡는 등 몇몇 작품의 이름을 바로 잡은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이 책의 머리적인 1편의 불교가사에 대한 개관은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불교가사의 변천과정과 주요 작곡, 구성원리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값 6만원. 권형진 기자(jiny@buddhania.com)

東西문화 접목 ‘연기’로 풀다

‘서양문학에 비친 동양...’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행릿’의 불교적 의미는 탐욕과 집착에 근거한 삶은 덧없고 괴로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속성을 이해하는 데 참 삶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것은 연기(緣起)하므로 연기의 속성을 알아 연기하는 모든 존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윤리성이 포함된 지혜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림대 인문학연구소가 펴낸 <서양문학에 비친 동양의 사상>에서 서기서(서원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세익스피어와 소설 <행릿>에서 다루어진 복수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부처님의 연기설과 삼법인에 근거해서 풀어낸다. 이 책은 ‘구도자 톨스토이의 동양사상’ ‘노장의 틀로 읽는 보들레르의 심층수학’ 엘리엇의 ‘네 개의 사중주’와 만다라 등 서양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고 있다.

니르바나의 시학 관에서 박경일 교수(경희대 영어학부)는 탈근대 담론에 보이는 불교적 패러다임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불교이론의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해 영문학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기한다. 또 김인수(강원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불교의 선시와 허무주의의 순수시’ 편에서 허무주의의 순수시와 공시상이 담긴 선시를 동서양의 여러 작품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중판사상 시야 넓히기

중론연구 박인성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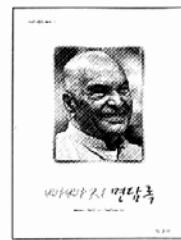
한역 <중론>과 산스크리트 본 <중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중론 연구>(민족사)가 나왔다. 글쓴이는 박인성 씨(중앙승가대학교 강사). 그는 한역본만으로는 <중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론>이 쓰여지기 전과 후, 즉 아비달마나 대승의 논서(유식)들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 동안 중론 연구는 <중론> 자체에만 치우쳤다는 것, 때문에 아비달마학파의 사상과 대승의 사상을 읽는 <중론> 각 품의 특성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본과 티베트본을 비교하면서 한역 중론의 불완전한 점을 탐구한 ‘관인연품’을 비롯 ‘관거래품’ ‘관상삼품’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 원측과 규기의 반야심경 주석을 비교하면서 유식학파의 중판 사상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한역본 <중론>에 무게를 실고 전개되던 기존의 <중론> 연구들에서 벗어나 비교 문헌연구를 통해 중론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다”

빠빠지 면담록 대성스님 옮김



20세기 인도 성자의 한 사람인 빠빠지(1920-1997)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빠빠지 면담록>(대성스님 옮김, 탐구사)이 나왔다. 빠빠지는 북인도 출신으로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유명한 성자인 라마나 마하르쉬의 수제자 중 한 사람. 그는 마하르쉬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가르침을 가진 제자로서 오랜 직업 활동을 했으며, 만년에 락나우에 거주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줬다.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장의 면담록에서는 ‘자유’란 말로써 표현되는 깨달음의 면담록에서는 빠빠지와 면담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면담자들은 대부분 서양인으로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 명상을 오래 한 사람과 작가, 의사, 티베트 승려, 철학도, 정신치료를 등이다.

빠빠지는 깨달음은 지금 여기 있으며 자유는 어떤 수행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그의 가르침은 간명하다.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존재가 문제이며 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이 탐구에 들어가게 된다. 이 탐구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뛰어들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인도·중국 불교사 산책



문답으로 풀어보는... 법산스님 옮김

불교학자, 시인, 서예가 등으로 널리 알려진 조박초 전 중국불교협회장 이 쓴 <불교지식문답>이 <문답으로 풀어보는 불교인문>(법산 스님 옮김, 불일)으로 옮겨져 출간됐다.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인도·중국의 불교사와 불교교리를 간략히 정리하고, 중국 불교의 종파와 티베트 불교까지 5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 기초교리의 교재로도 활용할 만하다.

글쓴이는 서문에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불교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한 것에 착안해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경망 서시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선방일기 | 지 허 | 역시아문 |
| 2 | 이론 아침에 나를 기억하라 | 틱 날 한 | 지혜의 나무 |
| 3 |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 정 화 | 법공양 |
| 4 | 일만송 수행일기 | 강 욱 구 | 동쪽나라 |
| 5 | 생략 속의 기도법 | 일 타 | 효 립 |
| 6 | 아미타불 수행법 | 정 화 | 솔과화 |
| 7 | 단백에 은혜를 갚는 가르침 | 김 지 수 | 불광 |
| 8 |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 현 각 | 열림원 |
| 9 | 빠빠지 면담록 | 빠빠지/대성 | 탐구사 |
| 10 | 전수경 전수신앙 | 해 국 | 효 립 |

도서 안내: (02)737-0695

Email: pubms@chollan.net pubms@netsoc.com

110-300 서울 중부구 권선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1(FAX) 733-4279

명상 시선 11

그리운 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란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핀 승부를 겨룬다. 그것은 확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편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락수들이
노을처럼 타고 있네.
밀희의 사공(時空) 사이
입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승경 하나로
나 실선
빛을 놓고 천년 살리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
화석으로 굳어지면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다.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다.
(‘천년만 함께 가는 님’ 전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272쪽
값15,000원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편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담선시를 이번엔 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 기쁨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용

중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중문의 대불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첫눈 속 깨달음의 향기를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

한국 열대
고승 高僧의
茶詩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272쪽
값15,000원